

교수들의 요구조사를 통해 본 서울대학교 영어강의 질 향상 방안

● ● ●
민혜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근 영어강의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9년 1학기 전체 개설 강좌의 12-3%가 영어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신입생부터 ‘영어(외국어) 진행 강좌 의무 이수제’가 적용되어 졸업을 위해서 전공 3학점(1강좌)을 포함하여 평균 9학점(3강좌) 이상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해야만 한다.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영어가 중요시 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학생들에게 졸업 영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김민정, 2007). 이와 더불어 영어강의의 개설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영어강의에 관한 요구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내는가 하면 영어강의가 영어능력 향상과 전공 지식 습득의 측면에서 효과적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어강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영어강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어강의가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영어강의의 질을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14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영어강의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교수 대상 심층 인터뷰와 설문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영어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운영하는 교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영어강의 지원 정책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교수자 요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실시교수자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영어강의 개선 방안 제안

□ 영어강의 운영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영어 강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응답한 서울대 내의 강의 교수자는 총 104명이었다. 이들의 응답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수자 설문조사 문항별 응답 내용 요약

면담 응답	영어 강의 진행 이유	'학교 방침에 의해' 52명(23.4%)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가 49명(22.1%), '외부 지원(인센티브, 의무수업시수 축소, TA지원 등)에 의해'가 29명(13.1%)
	영어 강의의 필요 이유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45명, 23.9%)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44명, 23.4%) '영어 강의가 불필요하다' 41명(21.8%)
	영어 강의 개발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학생들의 영어 실력' (68명, 31.8%) '본인의 영어 실력' (41명, 19.2%) '교과목 개발 지원 부재' (32명, 15%), '영어 강의 의무화와 같은 외부적 압력' (29명, 13.6%), '행정적 지원 부재' (27명, 12.6%), '영어 강의 진행에 관한 교수법 워크숍 부재' (17명, 7.9%)
	영어 강의 운영의 어려운 점	'전공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함' (69명, 27.3%),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움' (66명, 26.1%), '학생의 영어 실력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61명, 24.1%) '한국어 강의에 비해 두 세배의 강의 준비 시간이 소요됨' (38명, 15%), '수업의 수준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모호함' (19명, 7.5%)
영어강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영어 강의에서 한국어로 진행되어도 될 부분	'강의 관련 질문/답변' 42명(40.4%) '수업 후반, 전체 요약' 17명(16.3%) '없음' 16명(15.4%)
	학생	'영어 강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 44명(42.3%), '영어강의 수강을 졸업조건으로 부여' 23명(22.1%) '영어 강의 수강 시 교환학생 선발에 혜택 부여' (18명, 17.3%), '영어 강의 수강 시 장학금 지급 제도' (5명, 4.8%), '영어 강의 홍보' (4명, 3.8%)
		교수자
시행을 위한 방안	'인센티브, 의무 수업 시수 축소, TA 지원 확대' (51명, 49%)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자를 선별하고 검증' (30명, 28.8%) '교양 과목부터 일정 비율로 실시' 9명(8.7%)	

	<p>영어강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p>	<p>‘인센티브 제공, 의무 수업 시수 축소 및 조교의 배치 등’ 과 같은 체계적인 행정적인 지원(77명, 26.6%), ‘교재 및 자료 개발 지원과 같은 교과목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51명, 17.6%)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33명, 11.4%)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3명, 11.4%) ‘영어 강의 진행에 관한 교수법 워크숍’ (32명, 11%)과 ‘교수자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1명, 10.7%)</p>
	<p>교수법 워크숍이 제공 시 필요한 프로그램</p>	<p>‘효과적인 영어 강의 운영 전략이나 유용한 표현을 제공하는 영어 교수법 강의’ (73명, 32.7%), ‘영어 발음 및 문법, 표현 오류에 대한 수정을 다루는 1:1 원어민 영어 코칭’ (55명, 24.7%) ‘소그룹을 구성하여 동료 평가 및 원어민 강사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영어 강의 운영 방식의 점검’ (43명, 19.3%), ‘영어 강의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32명, 14.3%), ‘촬영을 통한 강의 분석’ (20명, 9%)</p>
<p>자유 응답에서 나타난 의견</p>	<p>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p>	<p>‘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 알아듣고 따라오는 편’ 56명(64.4%) 과반수,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부담스러워함’ 16명(18.4%) ‘잘 알아듣지 못하여 교수-학생 간 의사소통이 어렵다’ 10명(11.5%)는 난점 해소 - 학생들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며 태도가 변화함. - 본교생들의 유학준비를 위한 경험 쌓기 위해 충분히 영어강의 필요 -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강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현재 2배의 강의 수 가 필요하다 - 인센티브를 폐지하자 국제화 점수 급감하하므로 재 지급되어야함.</p> <p>영어 강의 관련 부정적인 점</p> <p>- 학부과목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어강의가 효과적 - 학생과의 소통 저하 및 교육의 질 저하 문제 - 영어능력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며, 영어 강의를 듣는다고 능력이 좋지는 것 아니라고 생각함 - 극소수의 외국인 학생들 때문에 전체를 영어강의를 할 필요성 의문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 학생 편차가 크고, 교수자가 영어강의를 통해서 영어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음</p> <p>영어 강의에 대한 보충·수정·지원과, 다양한 적용 방법</p> <p>- 영어강의 수강전략 특강 확대 - 영어를 강의위주의 과목보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전공토론이나, 세미나 위주로 진행 - 영어 및 외국어강의에 능통한 교수들을 정책적으로 선발 - 영어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선행수업 개설 - 학생평가가 좋은 영어 강의자에게 꾸준한 수업기회 보장 - 학생들의 분위기 진작을 위해 학기 초 한국어 사용 및 내용 요약 보장</p> <p>본인의 영어 강의에 일어난 변화</p> <p>- 외국인이 많이 참여함에 따라 외국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토론식 강의 확대 - 핵심 위주의 강의 -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PPT를 더 많이 사용 -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강의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전환 - 토론, 발표식 수업에서 이해 확인을 위한 설명 반복 수업으로 전환하고 난이도를 쉽게 바꿈.</p> <p>기타</p> <p>- 교수자 입장에서 영어강의는 대학원과정에서 시작, 점차적으로 학부과정으로 확대하는 편이 좋을 것임 - 대부분 대학원 수업은 한국인이 절대 다수인 경우에도 진행하기 수월하고, 학생들도 쉽게 적응하는 편.</p>

□ 영어강의 운영 교수 대상 면담조사 결과

심층 면담에는 영어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문제점, 영어강의 진행 시의 어려움, 영어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학내 교수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면담 참여 교수들은 현시점에서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었으나 대학 자체에서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목적과 장단기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강의를 실제 실시하는 교수를 위한 인센티브나 수업시수 인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영어강의 워크숍이나 컨설팅 및 자료 제공과 같은 교육적 지원에 관심을 나타냈다. 교수 심층 면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수자 면담조사에서 나타난 영어강의 현황과 제안사항

<p>영어강의 필요성 및 문제점</p>	<p>*영어강의의 필요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강의를 익숙하게 잘하기 위해서 영어강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 및 교환학생을 위한 외국어 강의의 필요성 증가 3) 대학전체 차원에서 우리대학의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목적과 비전을 교수들이 함께 공유하는 노력 필요 <p>*영어강의에 대한 우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전공과 모든 영역에 영어강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영역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예: 국문과에서의 영어강의의 필요성) 2) 개념의 깊은 이해와 정립 등이 영어강의로 진행할 때는 한계가 있음. 문제 풀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내용 전달이나, 자료 전달로의 역할만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 있음.
<p>영어강의 진행시의 어려움</p>	<p>* 수업 운영의 어려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가 익숙지 않은 문제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므로, 교수자도 수업에도 익숙하지 않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문법 실력 등이 개개인의 편차가 심해 수업진행이 어려움 2) 전공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진도도 못 맞춤 3) 외국인 교환학생(재외국민)과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학생, 그리고 외국 경험이 없는 한국인 학생 등이 혼재하고 있어 수업의 수준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 지 어려움 4) 영어실력이 학생 평가에 noise로 작용 <p>*강의 노력에 비해 지원 부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한국어 강의에 비해 2~3배의 강의 준비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효율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몇%나 내용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의문 : 연구와 병행하기 어려움

	<p>2) 1.33학점을 실제 사용하기 어려움 (강사 및 재원 부족)</p> <p>3) 첫 영어강의에만 지원되는 200만원의 보조금은 유인가가 적음</p> <p>*신임교수에게만 영어강의를 맡기는 문제</p>	
지원 방안	수업 외적 지원 방안	<p>*제도적 지원 방안</p> <p>1) 교수자가 선택이 가능한 영어강의에 대한 인센티브 및 학점(수업시수) 보상 - 강의 개발비 매회 지급 또는 증액 - ex) 경영학과에서는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들에게 3-4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 강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됨</p> <p>2) 같은 과목을 연속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 (매학기 혹은 매년) 3) 외국인 교수 확충 및 시간강사 충원 - 정규 수업에 해외 석학 단기 초청 강연 : 재정 지원 - (전공기초) 영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외국인 교수 채용 :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영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연구 부담은 경감시켜 줌,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p> <p>4) 학부보다는 대학원 수준에서 영어강의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학부로 확대 - 기본 개념과 사고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적</p>
	수업 내적 지원 방안	<p>* 훈련프로그램과 컨설팅 필요</p> <p>1) 교수자 영어강의 훈련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의 영어 교육프로그램 제작 지원 - 상황별 표현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 워크숍 등 지원 - 영어 강의에 대한 노하우와 특히, 영어 강의 실제 내용을 담은 동영상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 - 연구년 등을 이용, 외국에 나가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세미나 등을 개발하여 연구년 임박하신 교수님들에게 홍보</p> <p>* 영어강의를 위한 매뉴얼 제작</p> <p>1) 영어강의에 대한 세련되고 정돈된 format(시나리오, Question 등)을 만들어 상황별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업로드</p> <p>2)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풍부한 어휘 선택 (classroom English)을 하고 발음이 교정될 수 있도록 교수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p> <p>* TA에 관한 지원</p> <p>1)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TA를 영어강의에 우선 배치하여 수업내용의 영문 스크립트 검토 및 보조 수업 자료 진행 등을 돕는 등이 원활한 강의 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2) TA를 위한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을 지원</p> <p>* 영어강의 개선을 위해 교수자의 노력자책 점수를 주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점차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p> <p>1) 좋은 영어 교재 선정, 보조 수업 자료 준비 지원 예) 듣기가 약한 학생을 위해 강의 내용을 시각자료로 만들어 보여주거나 한국어 요약</p> <p>2) 평가의 기술과 융통성이 필요 예) 실력이 늘어난 정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여 한국 학생들의 약점 보완 예)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어로 쓴 경우 가산점 주기</p>

□ 교수들이 생각하는 영어강의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제안

1.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기능성

○ 영어강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비전 공유 필요

우리대학의 영어강의를 시행하는 목적과 비전을 교수들이 함께 공유하고 CTL 등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교환학생 증가와 국제화 추세에서 영어강의 필요성 증가

영어의 언어적 교육 측면, 학생들이 추후에 외국에 나가서 학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영어강의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강의는 꼭 필요하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써 영어강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대의 많은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도 영어강의가 필요하다. 증가하는 교환학생과 전공과목 중 주교재가 원서인 경우에도 필요하다.

2. 현재의 영어강의의 문제점

○ 영어로 강의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이상 힘든 것이 사실이며, 2-3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여러 번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는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는 듯하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지만 항상 영어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과연 전공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몇 %나 전달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 중요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의 어려움

공과대학의 경우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나, 영어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단순 문제풀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나 깊은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내용전달, 진도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화학생물공학부의 경우에는 학부장님께서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 영어강의의 교육적 효과에 의문

공대에서는 대부분 원서를 사용하고, 수업 시 사용하는 PPT 자료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강의가 수월한 한편 영어강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게 된다. 영어로 강의할 때에는 원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사고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겠지만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영어강의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

○ 외국인 교수 선발 확대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해서는 영어강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제화 추세를 생각해서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없다. 100%의 영어강의의 전면 실시보다는 외국인 교수 선발을 확대하여 영어강의를 전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원되면 좋을 것 같다.

○ 대학원 수업에서의 영어강의 확대

학부 수준에서 시행하기보다는 사고력이나 기본 개념이 이루어진 대학원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실제로 대학원에서는 영어강의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 수업 내적인 지원 방안 필요

영어강의에 대한 좀 더 세련되고 정돈된 format(시나리오, Question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상황별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고, 풍부한 어휘 선택(classroom English)을 하고 발음이 교정될 수 있도록 교수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상황별로 어떠한 표현을 쓰는지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영어 강의에 대한 노하우와 특히, 영어 강의 실제 내용을 담은 동영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연동하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특히 영어권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강의하는 것이 관심사이므로, 차후에 이런 내용을 주테마로 하는 세미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 수업 외적인 지원 방안 필요

교수자가 선택이 가능한 영어강의에 대한 인센티브 및 학점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력에 점수를 주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점차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영어글쓰기 TA 지원, 영어 컨설팅 지원도 필요하다. 기초교양교육원과 국제협력본부, 국제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 등이 서로 협력하여 한국어문학이나 한국역사, 철학, 그리고 한국문화 등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면 어떨까 한다. 도쿄대학 등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